

차내 흡연에 성희롱 까지... 레드카드! 꿀불건 택시기사

광주여성민우회가 떠난 택시 이용 수기집 보니

공포심 유발 발언 등 여성승객 불안·불편

“혼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대뜸 부부 관계에 대해 자꾸 물어봐 중간에 내려 버렸어요.”
 “눈이 와서 도로가 꽁꽁 얼었는데 택시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더니 결국 눈

길에서 한바퀴 돌았어요,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리다 죽는 건 아닌지 엄청 무서웠어요.”

“아이고, 택시에 진동하는 담배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어쩔 땀 손님이 탔는데도 담배를 피워대고...”

광주지역 여성 승객이 작성한 ‘택시 서비스’에 대한 평가서엔 불평불만이 가득했다. 버스, 지하철 등 여타 대중교통에 비해 기사와 승객 간 거리가 좁고 폐쇄적인 구조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가능하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최근 ‘2014 여성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택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여성 37명이 직접 작성한 택시 탑승 수기를 발표했다.

승객 37명은 광주에 거주하는 10~70대 여성들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과 좋았던 점을 널리 알려, ‘여성이 이용하기 좋은 택시’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들은 저마다 직접 작성한 A4용지 3~6장 분량의 수기를 작성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여성들은 ▲택시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희롱 내지는 공포심 유발성 발언’ (34명 지적) ▲난폭 운

손님 있어도 버젓이 담배



수치심 유발시키는 발언



손님 호칭 대신 아줌마



전(20명) ▲승차거부(8명) ▲먼 거리로 돌아가기(7명) 등을 개선해야할 점으로 꼽았다.

또 택시 안에 승객이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택시 기사, 플라스틱 찻꼭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식품을 택시 안에 설치한 기사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객 호칭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손님’이 아닌 ‘아가씨’나 ‘아줌마’로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몇 살이나, 남자인지 있느냐”는 불필요한 질문은 물론 “부부관계는 어떤가” 하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이모(여·

38)씨는 “택시 기사가 거울로 뒷좌석을 훑어보더니 ‘예전에 처음 본 여성 승객과 모델까지 갔다’는 말까지 했다. 이게 성추행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라고 수기에서 주장했다. 승객 손모(여·33)씨는 “잔돈을 기다리는데 기사가 ‘그걸 받으려 합니까?’라며 돈을 바닥에 던져버려서 민망한 적도 있었다”고 수기에 썼다.

반면 택시에서 내려 짐을 트렁크에 실어 주거나 목적지를 먼저 묻고, 적은 요금이 나와도 밝은 표정으로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칭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목적지를 먼저 물어보고 짐을 실어주거나 택시 내부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안

전 운행을 하는 택시기사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운전원 교육 강화 ▲운전원 처우 개선 ▲운전원의 자발적인 의식 개선 등을 들었다.

최희연 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주에서는 여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결과를 모든 택시 기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운전원 지도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금호고속 주총 결의 효력정지

김성산 전 대표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이창환)는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가 금호고속을 상대로 낸 임시 주총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가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금호고속 최대 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트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12일 임시주총회를 열고, ‘매각방해행위’를 이유로 해임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IBK투자증권-케이스트 파트너스가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코에프씨는 채무자인 금호고속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인 주주로서 참석해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이사 해임·선임 결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동학대 근절합시다”

최근 인천지역 어린이집 학대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원, 어린이집 원생들이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1명이 보육시설 종사자

지난해 의심신고 23건

광주지역 어린이집 등 보육·양육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1명 가까이 어린이집 등 아동 양육 시설의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

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신고 259건 중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23건(8.88%).

이중 5건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지난 2013년엔 아동학대 의심신고 252건 중 74건(29.37%)이 보육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신고 접수됐다. 이중 18건은 양육시

설(16건)·보육시설(2건)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밝혀졌다.

지난 2년간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81건(의심신고건수 511건)으로 이중 보육시설 및 양육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3건(8.19%)이다. 사실상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1명 가량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종사자들인데, 아동학대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종사

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해당 기관에서 보육시설 및 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함께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대 확정 판정건수는 모두 163건.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복학대(신체·정서·성학대 등 두 가지 이상 학대) 48건 ▲방인 28건 ▲정서학대 17건 ▲성학대 12건 등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세월호 선원 15명 항소심 첫 재판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오후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오후 2시 고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사건 정정을 파악·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에 따라 열리는 공판준비기 일이다. 하지만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법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 안팎의 긴장감도 느껴진다.

이날 재판에서 이뤄지는 정정 파악 및 증인 채택, 증거 신청 등을 통해 항소심 재판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당장, 1심 때 무죄 판결을 받은 살인·살인미수, 수난구호법, 특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입증 및 규명이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을 담당하게된 형사 5부는 재판장인 서경환(연수원 21기) 부장판사와 김성홍(· 31기)·김진환(· 34기) 판사로 구성돼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구명뗏목 부실점검 4명에

징역 3년 6월~1년 6월 구형

광주지법은 19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송모(54)

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이사 등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뗏목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뗏목 44개 가운데 실제 피진 것은 1개에 불과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웃 텃밭에 있는 나무 캐 자기집 마당에 심은 50대



○...대낮에 이웃 텃밭에 심어진 나무를 가져다 자신의 집 마당에 옮겨 심은 50대 남성이 주민 제보로 들킨다.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운모(55)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정모(82)씨의 주택 옆 텃밭에서 두릅나무 1그루(시가 10만원 상당)를 갠 뒤

15m 떨어진 자신의 집 마당에 심어뒀다는 것.

○...윤씨는 인근 주민의 제보로 피해자가 신고한 지 6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개인 소유 텃밭이 아닌 공동 텃밭이라고 생각돼 무심코 나무를 가져갔다”며 황실수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델 뒤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이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3천만원, 보1억에 월세 350만원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광천파크 빌라 34평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304호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시세 및 감정이 - 1억 9천만원
 매매 - 1억 6000만원

빌라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H. 010-3605-5000

다음 빌라 32평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301호
 4층 중 3층, 정남향, 즉시 입주
 현재 전세 4500만원에 임대 중
 광주에서 30분 거리
 매매 - 6500만원